



5·18 민주항쟁 33주년 기념식을 앞둔 9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누워 있는 희생자들의 넋이 담긴 비문, 빗들은 좌절과 비탄 속에서 피와 한으로 쓴 사연들 역사의 한 표지판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묘지 비문에 얽힌 사연들

죽음 넘어 피·한으로 쓴 역사 표지판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된 5월 영령들의 넋이 담긴 비문(碑文). 이 비문엔 생전에 열사들이 남긴 글이나 유족들의 뜻깊은 얘기가 새겨져 있다.

추모객들은 좌절과 죽음을 넘어 승리와 부활을 다짐하는 피로 쓴 비문을 통해 그날을 되새기며 의미를 되짚어본다. 민주화를 부르짖다 떠나간 5월 영령들의 비문엔 어떤 사연들이 담겨져 있을까.

묘지번호 2-36 박병규의 비문엔 '죽음을 앞두고 전화로 식구를 안심시키던 내가 주검으로 돌아온 아침... 17년 세월 끝에 내 가슴 속에서 보낼 수 있게 됐구나.'라고 적혀 있다. 당시 동국대 1학년이던 고인은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과 맞서 싸우기 직전 가족과 전화통화를 한 뒤 사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묘지번호 1-57 조사찬, 5·18의 상흔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진이 있다. 옛 망월묘역에서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형언할 수 없

■ 묘지번호 1-57 조사찬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 가르침 새기며’

■ 묘지번호 1-61 최열락

‘울고 울고 지쳐버린 당신 아내 오늘도 울고’

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조씨의 아들 천호(37)씨의 모습이다. 비문엔 ‘아버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도 그 가르침을 새기며 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새겨져 있다.

또 하나의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눈에 띈다. 묘지번호 2-11 윤상원. ‘사랑도 이롭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들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져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라는 사실상 5·18 추모곡인 암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다.

“지금은 우리가 패배할 수 밖

에 없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기 위해선 끝까지 도전을 사수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긴 뒤 도청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날인 27일 사망했다.

그의 묘비엔 ‘윤상원은 5·18 항쟁지도부 대변인으로 전남도청에서 산화...’라고 적혀 있다. 현재 5·18 추모곡이나 다른 어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윤상원·박기순 영혼 결집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묘지번호 1-61 최열락, 운전사이던 고인은 5월 22일 광주교도소 앞 야산에서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비문엔 ‘원망·분노·슬픔·5

월 22일, 울고 울고 이젠 지쳐버린 당신의 아내 오늘도 울고, 당신 만날 날 기다리며 병준·병찬 소중히 지키렵니다.’라고 쓰여있다. 이것은 살아남은 자의 한과 미안함을 담은 아내의 마음이었다.

묘지번호 1-82 양희영의 비문엔 ‘5·18의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까. 부모의 괴팍한 고통을. 아들이 너는 모를 것이다. 아버지와 상봉하자.’라고 쓰여져 있다. 당시 고인의 나이는 19세. 유족들은 서울 퍼런 감시 속에 아들의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못한 채 마음속으로만 한 없이 울었을 것이다.

묘지번호 2-44 오세현의 비문엔 ‘1980년 5월 18일 무단 정치하의 시민생활은 괴로워 민주항쟁에 참여하다 유명을 달리했다’고 적혀 있다. 고인이 그토록 바라던 민주화는 실현됐지만, 서민의 삶은 여전히 파국적이다. 그래서 ‘광주의 5월’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종렬기자 galee@kwangju.co.kr

5·18 수상작 교체 논란 서울보훈청장 사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최근 불거진 5·18 공모전 수상작 교체 요구 논란 <광주일보 5월 6일자 6면>에 대해 직접 5·18 민주항쟁 서울기념사업회

(이하 사업회)를 찾아가 사과했다. 9일 사업회에 따르면 최완근 서울보훈청장은 지난 8일 오후 8시께 사업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 사업회 고

문인 박석무 행사위원에게 최근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업회 관계자는 “서울보훈청장이 시상 발표에 차질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 사과를 했다”며 “사과의 뜻이 분명했고, 행정기관의 장이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회는 지난 7일, 대회의 취지를 훼손하고 심사위원회의 권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보훈청장상 수상작 9점(글3, 그림3, 사진3)에 대해 올해는 5·18기념재단 이사장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박정렬기자 halo@

장만채 전남교육감 벌금형

업무상 횡령 1000만원, 정자법 위반 100만원

순천지원 선고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부터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일 화석 부장판장)는 9일 장 교육감의 업무상횡령(배임)혐의에 대해서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등과 추징금 338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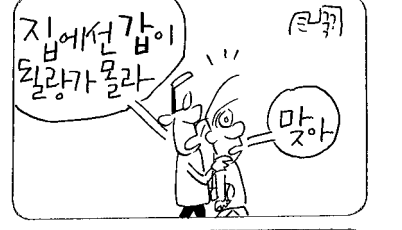
재판부는 “정치자금 투명성 입법 취지에 비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그러나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범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4300여만원 등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 재직당시인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친구인 정모씨와 손모씨 등으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총 6100만 원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한 달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교육감은 또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대학과 산학협력 관계인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2007년 11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는 대학 측으로부터 공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고(배임), 본인이 이사장인 대학 학술진흥재단 자금 8100만원(배임)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직을 사퇴하고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던 2010년 5월 학교 구내 식당 경영자인 박모씨로부터 3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 추가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나원침 (8813) 김종두



해상 뺑소니 어선 침몰... 선원 9명 구조

외국인 선장 등 조사

해상 뺑소니 사고로 어선이 침몰했으나 바다에 빠진 선원들은 전원 구조됐다.

완도해양경찰은 9일 항해중이던 어선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3만4급 나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 선장(54·루마니아) 및 조타실 근무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은 지난 9일 새벽 0시10분에 완도군 여서도

북쪽 16km 해상에서 흑산도 조업지로 가던 29급 근해유저망 덕일호와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덕일호는 컨테이너선과의 충돌로 배 중앙 부위가 파손돼 침몰했지만 배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은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사고 당시 컨테이너선이 덕일호와 충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따져 과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닭 불법 도축 6명 입건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비위생 시설에서 닭을 불법 도축해 관광객 식당에 대량 유통한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로 농장주 김모(51)씨와 박모(57)씨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구례, 순천 등에 비닐하우스 축사를 만들고 닭을 키워 밀도축한 뒤 유명 계곡이나 산장 등 식당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접대’ 의혹 실마리 찾았나

건설업자 윤씨 소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모(52)씨가 9일 마침내 경찰에 출석하면서 두 달 가까이 끌어온 수사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알려지자 지난 3월18일 전격적으로 내사 착수를 발표한 경찰은 그간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을 조사하고 주요 관련자들의 자택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 확보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성접대 동영상 사본은 질이 너무 나빠 등장인물

특정조차 불가능했고 유력인사를 성접대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여성 고인이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뒤집는 등 난관에 부딪혔다.

수사에 난항을 겪을 것 같은 경찰은 최근 체포해 조사한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제출받아 등장인물을 특정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핵심 인물인 윤씨를 소환하는 등 또다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군등 경찰청에 출석, 취재진에게 자신은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고 성접대 동영상 촬영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연합뉴스

도심 한복판서 새벽 흥기 난투극

○~심야에 도심 한복판에서 30대 남성 2명이 서로 흥기를 휘두르며 싸우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등 전전긍긍.

○~9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이모(33)씨는 전날 새벽 0시20분께 목포시 상동 한 횡집 앞길에서 선배 이모(35)씨에게 흥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오씨도 이에 맞서 흥기로 대항했다는 것.

○~이들은 한 달 전 술자리에서 한 차례 싸운 뒤 이날 “결판을 보자”며 다시 만나 흥기난동을 부렸는데, 경찰은 이씨를 구속하고 오씨에 대해선 퇴원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 /목포=고구석기자 yousou@

1. 시공 전 / 단열배이스크래프팅 시공 2. 단열배이스크래프팅 시공 / 트라이슈머 시공 3. 트라이슈머 탈코팅 시공 4. 시공 후

특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결로방지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코팅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61) 284-0485 (061) 683-0485 (061) 726-0482 (061) 795-0485

요리하는남자

YONAMJA
 Fusion Family Restaurant
 STEAK / PASTA / PIZZA / BEER

5월 중순 광주 유·스퀘어점
OPEN

출직원 | 주방직원 | 파트타임
 즐겁게 함께할 가족모임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